

2 뉴스

경영대선본 ‘에이블’ 낙마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경영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선거본부(선본) ‘에이블’의 황진호(경영학 2018) 전 부후보를 둘러싼 동아리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에이블’이 선거를 완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21일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황 전 부후보가 동아리 활동 중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차액을 채워 넣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다음 날인 22일 황 전 부후보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황 전 부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경영대학 선관위는 “자치회비, 동아리비와 같은 학생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공금은 참여자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자금 운용자들은 이러한 자금 운용에 있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황 전 부후보를 둘러싼 동아리비 횡령 사실)을 경영대학 동아리연합회에 전달하고 차후 소집될 경영운영위원회에서 공금 횡령 방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민 경영대학 선관위원장(경영학 2018)은 “이번 문제로 인해 학생자치에 대해 불신을 가지거나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경영대학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회와 선관위, 동아리연합회에도 이러한

사항을 인수인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힘쓰고 무너진 신뢰관계를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부후보도 22일 입장문을 내고 그를 둘러싼 횡령 의혹을 시인했다. 황 전 부후보는 자신이 동아리 회장직을 맡고 있던 2019년 6월 11일에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총 14,300원을 동아리 회비로 계산하고 20분 뒤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동아리 회비를 메웠으며, 6월 23일엔 한 피시방에서 2,000원을 동아리 회비로 계산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12월 1일에 같은 방식으로 동아리 회비를 메웠다고 밝혔다.

황 전 부후보는 “동아리 자금 운영 방식에 있어서 미리 돈을 모아서 지출하거나, 카드로 돈을 미리 사용하고 후에 돈을 메꾸는 방식에 구분이 없었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용하

다 보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가며이 여겨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 공금 체계를 확실히 잡아 투명한 운용을 이뤄내야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어떤 이유에서든 공금이 보관되던 카드를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황 전 후보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그와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나선 ‘에이블’ 송원섭(경영학 2018) 정후보도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전 정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1일 날 황 전 부후보의 의혹을 에브리타임을 통해 처음 인지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황 전 부후보는 당시(21일)에는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22일 오전 9시경 의혹이 사실임을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송 전 정후보는 이어 “(황 전 후

보의 횡령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선관위와 선본에 우선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며 “단 1원이라도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미리 알았다더라면 당선 이후였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황 전 부후보의 횡령 사실은) 분명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좌시해서도 안되는 일하기에 선본의 최고 책임자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대학 학생회 선거에 나선 선본 중 가장 많은 추천인 수를 기록했던 ‘에이블’이 송 전 정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황 전 부후보의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면서 경영대학 학생회 선거는 선본 ‘LINK’와 ‘Khu_AT’의 2파전으로 이뤄지게 됐다.

한편, 경영대학 학생회 보궐선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해 30일(수) 오후 7시까지 이뤄진다.

경영대학 사석화좌석 지속발생

황보종덕 기자 whd9223@khu.ac.kr

경영대학 내부 열람실 사석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석화란 특정 좌석에 소지품을 놓고 이용 시간이 만료돼도 그대로 방치해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6일 학내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경영대 열람실 사석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공장소인 열람실에서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개인 공간처럼 사용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경영대 1열람실에는 개인담요, 독서대, 생필품, 각종 쓰레기가 올려진 사석화 좌석이 5곳 이상 발견됐다. 경영대 2열람실 역시 휴지, 커피 등의 개인 물품으로 사석화된 좌석이 여러 곳 존재했다.

경영대학 재학생인 김지훈(경영학 2018)씨는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불편을 겪는 것이 아쉽다”며 “개인의 사석화로 많은 타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영대학 내부 열람실 사석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황보종덕 기자)

이에 경영대학 학생회는 열람실 좌석마다 사석화 금지 표를 부착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활용 제보 창구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석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영대 열람실 사석화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발생해온 문제였다. 2010년도 이전부터 경영대 학생들은 경영대학 홈페이지, 에브리타임 등에서 사석화의 불편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왔다. 경영대학 졸업생인 홍민서(회계세무학 2015)씨는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자주 이용했지만 사석화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다”며 “이곳은 특히 공인회계사 등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경영대 학생들이 이용해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좌석이 부족하다”며 사석화 해결의 필요성을 전했다.

경영대학 외에도 우리학교에 있는 열람실은 사석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과거 ‘푸른솔 열람실’은 출입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외부인 사석화 문제도 심화됐고 19년 부로 폐쇄된 바 있다. 이에 도서관자치위원회(도자위)는 주기적인 사석화 관리, 관련 공지 전파로 사석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도자위는 “사석화로 정리된 짐을 찾으려는 학생에겐 도서관 이용 제재 경고를 안내하고 있다”며 “현재는 중앙도서관에서의 사석화 문제가 크

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도자위는 사석화 발생의 이유를 ▲학생 개인의 이기심 ▲시험 준비 학생의 편리함 추구 ▲에티켓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자위는 “경영대 열람실의 사석화 실질 해결을 위해선 이용 학생이 모여 주기적으로 사석화를 관리,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영대학 학생회는 “사석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해결을 위해 경영대 행정실과 소통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학우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며 향후 문제 개선 의지를 전했다.

중국어학과 방역수칙 위반논란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중국어학과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 14일 중국어학과 22학번 학생 14명이 학교 근처 주점에서 사적모임을 갖고 개인 SNS 계정에 이를 게시했다. 특히 타 학과 학생들을 포함해 스무 명이 넘는 인원이 사진을 찍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중국어 학생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표명하고자 입장문을 게시했다.

학생회는 “앞서 3월 4일 개강총회가 끝난 후 학생회 임원 5명과 신입생을 동반한 14명이 뒤풀이를 진행했다”며 “선배로서 먼저 올바른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회 측에서 방역지침 준수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했다”고 전했다.

학생회는 “학과를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모범을 보이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마음가짐이 미비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